보도시점 2026. 11. 18.(수) 12:00 배포 2026. 11. 18.(수) 08:00

나부터 바른 복용, 다 함께 내성 예방!

- 질병관리청, 「2026년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」 캠페인 운영
- 원헬스 기반 범부처 공동 홍보를 통한 항생제 내성 예방 인식 확산

질병관리청(청장 임승관)은 「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(매년 11.18.~24.)」을 맞아 항생제 내성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, 항생제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 **'나부터 바른 복용, 다 함께 내성 예방!'**을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운영한다.

세계보건기구(WHO)는 2019년 항생제 내성을 인류가 직면한 10대 공중보건 위협으로 선정하였고, 사람·동물·식물·식품·환경의 건강이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**원헬스**(One Health)* **접근**을 통해 각 분야의 공동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.

* ('26년 세계 인식주간 주제) 하나의 건강, 하나의 행동: 지금 항생제 내성을 예방하세요(One Health, one action: Prevent AMR now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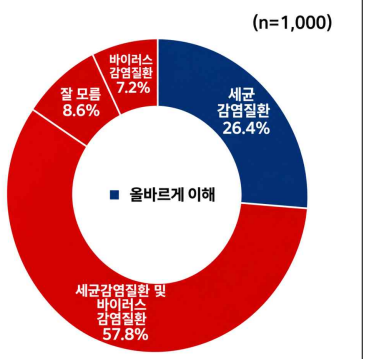
항생제 내성은 세균이 항생제에 저항하여 항생제가 더 이상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게 되는 현상이며,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 등으로 내성균이 증가하면 치료가 어려워지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.

항생제 내성은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과 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으로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으므로, 사람뿐 아니라 동물·식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항생제를 적정하게 사용하고, 식품과 환경을 통한 내성균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각 분야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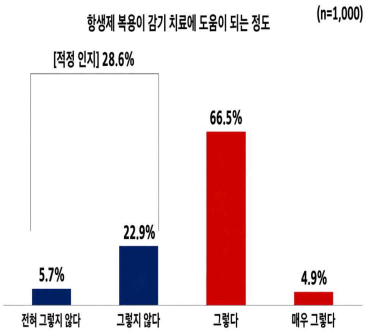
이와 더불어 국민의 항생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사용 실천도 중요하다. 질병관리청·문화체육관광부(국민소통실)가 실시한 **2026년 항생제 내성 인식도 조사*** 결과에 따르면 일반인의 경우 항생제의 용도를 **세균 감염 질환 치료로 정확히 인지한 비율은 26.4%**에 그쳤으며, 항생제가 **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은 71.4%**, **항생제 복용을 임의로 중단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66.2%**로 나타났다.

* (조사대상) 일반인 1,000명, 의사 1,000명, (조사방법) 온라인 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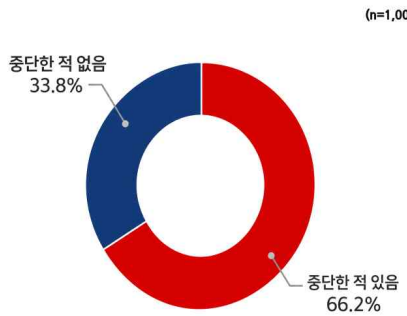
항생제는 어디에 사용되는 약입니까?



항생제가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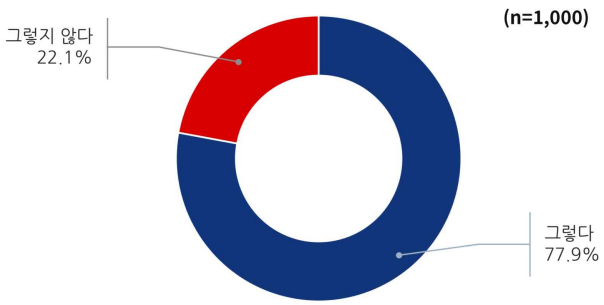
항생제 복용 중 증상이 나아지면, 처방된 항생제 복용을 중단한 적이 있으십니까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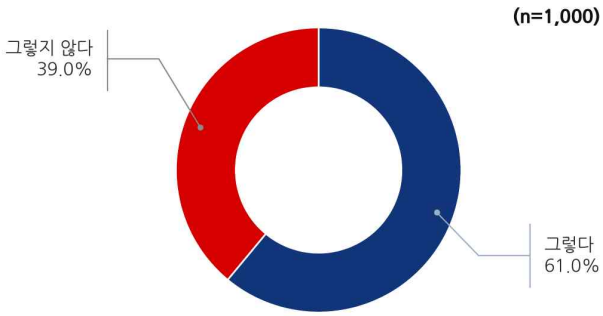
※ 파란색은 올바른 인식·복용 행동을, 빨간색은 잘못된 인식·복용 행동을 나타냄

이와 함께, 항생제 내성에 대한 지식을 살펴본 결과, **식물·환경에도 항생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비율은 22.1%**, 항생제 내성균의 **사람 간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비율은 39%**로 나타났다.

고기나 우유 등 우리가 먹는 식품이나 생활 환경에도 항생제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



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세균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



※ 파란색은 올바른 인식·복용 행동을, 빨간색은 잘못된 인식·복용 행동을 나타냄

이에 질병관리청은 2026년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을 맞아 **원헬스**(One Health) 관점에서 항생제 내성 예방 홍보 대상을 다각화하고,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홍보·교육 활동을 추진한다.

먼저, 원헬스(One Health) 관점의 항생제 내성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**「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(2026~2030)」 관계 부처***들과 함께 항생제 내성 예방 포스터를 공동으로 제작·배포한다.

'우리 함께 내성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하여 건강한 내일을 만들자'는 공통 메시지를 담아 범부처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, 의사·수의사·수산질병관리사, 농·축·수산업 종사자, 소비자 등 **대상별 맞춤형 예방수칙을 안내**하여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였다.

이를 통해 **항생제 내성은 여러 분야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과제**임을 알리고, 범부처 협력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할 예정이다.

* 농림축산식품부, 보건복지부, 기후에너지환경부, 해양수산부, 식품의약품안전처, 농촌진흥청

아울러, 국민이 일상에서 항생제 내성 예방 수칙을 실천하고 의료기관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**포스터와 리플릿, 배너**를 배포한다.

특히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원내 구성원과 환자·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·홍보 활동에 해당 홍보물을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하고, 관련 학·협회를 통해 홍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.

포스터는 질병관리청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에 게시하고, 제작한 홍보물은 누리집*을 통해서도 안내한다.

* (게재장소) 질병관리청 누리집 > 알림·자료 > 홍보자료 > 홍보지/ 질병관리청 누리집 > 정책정보 > 의료안전 및 예방 > 항생제 적정사용 및 내성 예방·관리 > 항생제 내성 예방 홍보

또한, 교육부 및 보건교사회와 협력하여 전국 초·중·고등학교에 **가정통신문을 배포**하고, 학교와 가정에서 항생제 내성 예방을 위한 올바른 인식과 실천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아울러 미래세대의 항생제 내성 예방 인식 제고를 위해 서울시 관내 초등학교 5개교를 **항생제 내성 예방 실천 시범학교**로 선정하여 학생 및 교사 대상 교육과 참여형 활동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인식을 높이고, 가정에서도 올바른 항생제 사용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학부모와의 연계도 강화한다.

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“항생제 내성 예방은 사람·동물·식물·식품·환경을 모두 위협하는 **공동의 숙제**로,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**사회 모든 구성원의 관심과 협력, 적극적인 실천이 중요**하다”고 강조하였다. 아울러 “국민께서는 항생제가 **꼭 필요한 경우에만 처방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**, 질병관리청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항생제 내성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<붙임> 2026년 항생제 내성 예방 캠페인 홍보물

담당 부서 <총괄>	의료안전예방국 항생제내성관리과	책임자	과 장 신나리 (043-719-7530)
		담당자	연구관 진여원 (043-719-7531)
		담당자	주무관 김현미 (043-719-7536)
담당 부서 <공동>	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	책임자	과 장 황성철 (044-201-2551)
		담당자	사무관 이유경 (044-201-2552)
	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	책임자	과 장 홍경진 (044-201-6750)
		담당자	서기관 김승주 (044-201-6751)
	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	책임자	과 장 정기원 (051-773-5610)
		담당자	사무관 박전오 (051-773-5407)
	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 조성훈 (043-719-3240)
		담당자	사무관 박정규 (043-719-3242)
	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	책임자	과 장 유오종 (063-238-0820)
		담당자	사무관 임영주 (063-238-0833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| **2026년 항생제 내성 예방 캠페인 홍보물**

□ 포스터(3종)

○ **범부처 포스터(2종)**



❶ 범부처용 포스터

2026. 11. 18.



❷ 범부처용 포스터

◯ 일반인용(1종)



❸ 일반인용 포스터

* (게재장소) 1) 질병관리청 누리집 > 알림·자료 > 홍보자료 > 홍보지
2) 질병관리청 누리집 > 정책정보 > 의료안전 및 예방 > 항생제 적정사용 및 내성 예방·관리 > 항생제 내성 예방 홍보

□ 리플릿(1종)

<겉지>



<속지>



* (게재장소) 질병관리청 누리집 > 정책정보 > 의료안전 및 예방 > 항생제 적정사용 및 내성 예방·관리 > 항생제 내성 예방 홍보

□ 배너(4종)

○ 의료인용(2종)





○ 일반인용(2종)



